

經濟·社會發展의 問題

(Suggestive Thinkings of Some Issues arising in the Cours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林 熙 喆*

目 次

1. 머릿 말
2. 經濟發展과 社會的 變換(1) - Keynes 豫言의 吟味
3. 經濟發展과 社會的 變換(2) - Herman Kahn 豫言의 吟味
4. 經濟發展과 社會的 變換(3) - Galbraith 의 進步的 自由主義의 警戒
5. 經濟發展과 社會的 變換(4) - George Fisk 의 時代區分과 關聯해서
6. 現今의 一部 社會問題에 對한 思考(1) - 靑少年問題
7. 現今의 一部 社會問題에 對한 思考(2) - 어른들의 靑少年에 對한 姿勢問題
8. 現今의 一部 社會問題에 對한 思考(3) - 老人問題
9. 要約과 結語

1. 머릿 말

經濟發展과 社會福祉의 增進은 相互依存의이고 兩者가 調和되어 發展함이 理想的이다. 그러나 工業化初期段階에서 너무 社會開發에 力點을 두면 經濟가 停滯된다. 그렇다고 經濟成長을 서둘러 보면 흔히 經濟環境으로서의 社會에 不安要因이 쌓이게 된다.

經濟發展과 社會開發의 先後를 따지는 것은 마치 달걀과 닭과의 關係와 같아서, 社會的 條件이 이룩되고 나야 經濟開發이 이루어진다는 點에도 首肯가는 點이 없지 않고 또 經濟發展이 있고 난 다음에 社會開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點에서도 首肯이 간다.

經濟政策의 目標가 人間의 物質的 福祉를 充足시키는데 있다면, 社會政策은 精神的 福祉를 追求하는 것이라고 할 때 “3日 굶어 담 안넘는 이 없다.”는 말이나, “광속에 人心난다”는 말들이 앞서의 經濟開發優先의 論旨의 根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機械

* 本 研究所 研究所長, 商經大學 貿易學科 教授.

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요 機械를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요, 商品을 만들고 유통하고 消費하는 것도 사람이다” 라는 말에는 社會開發優先의 色彩가 풍긴다.

여기서는 그 어느 것이 優先하느냐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物質生活이 어느程度 發展하고 나아가만 精神面의 發展을 追求할 수 있다는 立場을 取한다.

그것은 첫째 政策的 次元에서 볼 때 經濟開發의 結果 財政的 餘裕가 생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社會政策支出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再投入所要期間面에서 볼 때 物質的投資 - 物質生活 - 再投資라는 擴大再生産過程은 比較的 短期間이지만, 社會的投資 - 社會·文化의 開發 - 再投入 即 發展된 傳統과 精神의 確立이라는 社會的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은 매우 긴 時間을 要한다. 오늘날과 같이 急激히 變革되는 國際社會에서 落伍되지 않고 前進하기 위하여는 우선 短期間에 擴大再生産을 견을 수 있는 側面으로의 投資가 우선 함은 말할 것도 없다.

解放後 近20年間 우리는 貧困의 惡循環 속에서 헤메었다. 極甚하고 慢性的인 인플레이션에서 社會惡이 釀成되고 紀綱이 문란해져서 援助로 因한 依他心은 慢性化하였다. 60年代初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은 工業化를 서둘러 自助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成功하여 그 後 2次·3次的 5個年計劃을 통해서 그것을 充實化해 가는데 寄與했다. 이제 70年代의 後半 第4次計劃부터는 國民經濟의 自立을 위해 남은 취약點으로서의 重工業 分野에의 投資를 擴大하는 方向이 採擇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一方 社會福祉에 關한 努力도 눈에 띄이기 始作했으나 아직 그 投資額은 그다지 크지 못하다.

過去와 같은 速度로 工業化가 進行될 때 80年代에 重化學工業에 對한 新規投資가 마무리 되고 우리 經濟가 自立(여기서는 追加的 外借없는 狀態를 指稱한다.)의 境地에 進入하게 되고 財政的餘力에 뒷받침된 社會福祉의 增進政策이 追求될 때 名實相府한 先進國化를 바라보게 되기를 期待한다.

2. 經濟發展과 社會的 變換(1) - Keynes 豫言의 吟味

Keynes 는 일찍이 100年後를 豫言한 바 있다. 그 概要와 特히 그 마지막 句節을 吟味할 必要가 있다.¹⁾

1) J.M. Keynes,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 Children, Essays in Persuasion, 1931.

經濟·社會發展의 問題

그 속에서 Keynes 는 脫工業化時代를 점치고 있다. 卽, 그 때가 되면

① 오늘날 같은 (1931年當時의 美國이나 英國의 그것을 생각하라.) 쫓기는 듯한 經濟的生活로부터 解放될 것이다.

② 그것은 한편으로 하루 3時間 作業 또는 週 15時間 作業으로 生活의 充足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③ 그렇게 되면 餘暇를 어떻게 活用하느냐 하는 것이 큰 問題로 抬頭한다. 그것은 오늘날(다시 그 當時의) 美國이나 英國의 富裕層의 婦人들이 할 일이 없어 精神錯亂症을 이르는 것이 그 하나의 例이다.

④ 그때 必要한 것은 生의 技藝 그 自體일 것이다. 이것은 팔기 위한 藝術이 아니라 이 豐足해진 生活을 어떻게 즐기느냐 하는 生活技法을 體得하는 것이다.

⑤ 또 한편으로는 社會的 富의 蓄積도 必要치 않게 되어 道德律에 큰 變化가 올 것이다.

⑥ 貨幣의 價值保藏手段으로서의 機能(交換手段으로서가 아닌)이 없어져서 돈을 所有하고자 하는 欲望은 구역질 나는 不健全하거나 또는 準犯罪的 疾患으로 여겨질 것이다.

⑦ 眞正한 計劃性(purposiveness)를 追求하게 된다. 우리의 行動이 오늘의 即刻의 效果가 아니라 먼 훗날까지 어떤 效果를 갖어 올 것인가 하는 것이 重要하게 된다.

⑧ 그리하여 마침내 人間은 一部 가장 確實하고 確固한 宗教와 傳統의 道德으로의 復歸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不正이 社會惡으로 規定되고 高利貸金이 社會惡이 되며, 拜金이 社會惡이 된다는 것이다.

⑨ 그러나 注意할 點은 이와 같은 社會到達에는 아직도 한 100年은 더 걸린다는 點이다. 그 동안, 우리는 아직도 不正과 高利貸와 돈의 崇尚과 같은 갖가지 豫備的 行動等이 우리를 支配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過程을 통하여만 經濟的 必要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一部 東洋人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도 注目해야 할 點은 이글이 內包하는 現西歐 文明에 對한 評價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通常 느끼고 指摘하는 西洋 風潮의 지나친 拜金·物質萬能主義라는 것이 眞正한 그들의 道德律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點과 關聯하여 Keynes 는 「目的보다 手段이 더 重視된 思考는(그러지 아니하면 貧困 속에서 남에게 먹히게 되니까) 하나의 方便이었다.」는 點을 明示하고 있고, 또 「過去 200年間(産業革命後 지금까지) 拜金思想과 高利貸金을 용인하여 온 것이 하나의 假道德律

(Pseudo-moral principles) 이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의 意識과 價値觀이 隨落하는 것을 恨歎하기에 앞서 西洋의 假道德律을 그들의 眞道德律로 잘못 評價하는 것을 嚴히 警戒할 必要가 있다. 假道德은 眞道德에 到達키 위한 手段에 不遇한 것이며, 이 手段없이는 永遠히 眞道德을 追求할 수 있는 段階에 到達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것을 용인할 뿐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번 돈이건 간에 큰 돈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에게 最大의 敬意를 表하는 上下의 氣風 그것이 隨落이 아니고 未來를 위한 참음이라는 것을 느끼고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Shakespere가 일찍이 베니스의 商人의 商魂과 高利貸金을 꾸짖고 또 Free Masenry가 社會不正을 告發하는 秘密結社 이었음에도 不拘하고 歐美에 拜金思想이 있어 올 수 있었고 또 그럼으로써 工業化世界에 君臨할 수 있었던 緣由를 알아야 할 것이다.

3. 經濟發展과 社會的 變換(2) - Herman Kahn豫言의 吟味

農業國家가 工業化하고 大量消費時代를 지나 脫工業時代로 가는 길은 뻔하다. 이제 工業化가 相當히 進行된 우리나라에서도 大量消費時代를 目前에 두고 앞으로 올 脫工業時代를 豫見할 수 있는 段階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段階는 必히 밟아야 할 過程이고 工業化에는 貯蓄이 必要하고 浪費는 禁物이다. 그런데 자칫하면 未來의 幻想이 우리를 倒錯시킨다.

우리의 1人當 GNP는 1950年代에는 1人當 100弗 未滿의 低位에 있었으나 1974년에는 500弗臺, 1977년에는 1,000弗臺를 넘어서고 最近에는 年率 10% 以上の 높은 率로 成長해 1984년에는 2,000弗臺를 突破하여 1990年代初에는 8,000弗臺에 到達하게 될 것으로 豫測되고 있다.²⁾

GNP 自體가 國民福祉를 正確히 反映하느냐 與否에 關한 論難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것에 代置될 純國民福祉(Net National Welfare = NNW)의 概念은 있으되 이것을 어떻게 재느냐 하는 尺度 即 指標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1人當 GNP가 經濟水

2) KDI, 長期經濟社會發展, 1977~91年, p. 41. 經常價格; 換率이 安定될 때 弗貨表示 1人當所得水準은 經常價格表示 GNP에 近接한다.

準에 關한 唯一한 指標인 것이다.

經濟發展段階에 關해서는 여러가지 區分이 있으나 Herman Kahn 과 Anthony J. Wiener 는 經濟發展을 다음의 5段階로 區分한다.³⁾

<表 1> 經濟發展의 5段階

1. 工業化前段階	1人當所得	50 ~ 200 弗
2. 部分的 工業化 또는 變換段階	"	200 ~ 600 弗
3. 工業化 段階	"	600 ~ 1,500 弗
4. 大量消費 또는 先進段階	"	1,500 ~ 4,000 弗
5. 脫工業化段階	"	4,000 ~ 20,000 弗

이것은 1967年 價格基準이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의 1人當 GNP (經常價格)의 움직임에 適用시켜 보면

<表 2> 韓國經濟의 發展期間 區分 豫想

1960年度 前半까지	工業化以前 段階 (50 ~ 200 弗)
1970年度 中半까지	部分的 工業化 또는 變換段階 (200 ~ 600 弗)
1980年度 初까지	工業化 段階 (600 ~ 1,500 弗)
1990年度 初까지	大量消費 또는 先進工業化 段階 (1,500 ~ 4,000 弗)

라는 過程을 밟을 것으로 期待하게 된다. 基準時點의 差異를 勘案할 때 늦어도 80年代 中盤까지는 成熟工業化段階를 마무리 짓고 그 後 大量消費時代인 先進工業化段階에 進入하여 2000年代初에는 脫工業化段階까지 가게 될 것으로 豫想할 수 있다.

Herman Kahn 은 2000年의 世界各國이 處할 經濟發展段階를 豫想提示한 바 있다. 그의 豫言時點인 68年 以前까지의 成長實績으로 나타난 成長潛在力을 基礎로 하였기 때문에 그 後 일어난 潛在力의 變化 - 例컨데 韓國·멕시코·부라질 등의 超高速成長과 北韓 經濟의 相對的 停滯같은 - 가 제대로 反映되어 있지 못한 흠이 없지는 않다. 그리고 油價變動과 그것이 產油國에 주는 社會·經濟의 效果를 전혀 考慮치 않았다. 그래서 이들을 감안하여 再構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달라價値의 變化만큼은 감안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70年 不變價格으로 보면 實質的으로 大差없을 것이다. 또한 數個國의 EC

3) Herman Kahn and Authority J. Wiene, The Year 2000. Macmillan, 1967.

加入과 新規油田開發 그리고 一部 西部太平洋沿岸 急速成長國 등의 成長潛在力이 보이는 國家들은 各各 한 段階씩 上向 調整했다.

〈表 3〉 2,000 年의 世界各國 發展段階 豫想⁴⁾

-
- (1) 工業化 以前段階 (50 ~ 200 弗)
- 其他의 아프리카
 - 其他의 아랍國家
 - 其他의 아세아
 - 其他의 中南美
- (2) 部分的 工業化段階 (200 ~ 600 弗)
- 파키스탄, 인도, (越南), 에집트, 나이지리아
- (3) 工業化段階 (600 ~ 1,500 弗)
- (가봉)
 - 우루과이, 칠레, 큐바,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 자마이카, 북한 등
 - (中共), 泰國,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레바논, 이라크
- (4) 大量消費段階 (1,500 ~ 4,000 弗)
-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싸이프라스, 그리스, 불가리아,
 - 헝가리, 아일랜드, 南阿, 아르헨틴, (멕시코), 이란, 베네수엘라,
 - 말레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 (5) 脫工業段階 (4,000 弗 以上)
- 初期 脫工業化段階
 - 소련, 伊太利, 오스트리아, 東獨, 체코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臺灣), (韓國), (홍콩), (싱가포르)
 - 後期 脫工業化段階
 - 美國, 日本,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3 國, 스위스, 佛蘭西, 西獨, 베네룩스
 - 3 國, (英國)
-

우리는 現在 第 3 段階인 工業化段階의 後期를 지나 第 4 段階인 大量消費時代에 到達해 있으며 앞으로 第 5 段階인 脫工業國家로의 進入을 위하여 對備하여야 할 段階에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第 2 의 天國에 該當하는 그 時代는 그 以前의 各 段階를 着實히 걷고 난 다음에나

4) Kahn 前揭書에 依據 筆者再構成, () 內는 再構成에서 段階變更國임.

到達可能한 것이다.

現代의 交通·通信이 그만큼 빨라져서 우리는 先進國에서 생겨나는 未來의 豫言에 接하게 되고 그에 따라 後日 우리가 到達할 時代를 미리 점칠 수 있고 그에 미리 對備하는 賢明함을 적어도 一部에서는 같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一部는 그것으로서 致富도 하고 또 一部는 社會思潮의 先導者的 立場에 서기도 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時代가 오기 前에 그 以前의 거처야 할 各 段階가 있어야 한다는 點을 흔히 忘却하기 쉽고 또 그것은 禁物인 것이다. 어제와 오늘과 또 來日이 지나고 가야 모래가 있고 글피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4. 經濟發展과 社會的 變換(3) - Galbraith 流의 進步的自由主義의 警戒

美國에서 한때 特히 青年層에 相當히 侵透되었든 것으로 보이는 Galbraith 流의 進步의 自由主義는 基本的 必要를 充足하고 난 美國과 같은 社會에서는 依存效果에 依하여 造出되는 副隨的 欲求의 充足을 위한 生産擴大는 必要치 않고 다만 公共 Service의 擴大만이 必要하다고 한다. 簡單히 말하여 物質生産을 위한 投資는 必要치 않고 公共用役 卽, 福祉投資만이 要求된다는 것이다.⁵⁾

이에 對하여 Samuelson은 그를 青年을 幻感시키는 經濟學의 亞流에 不過하다고 매도하였고⁶⁾, 또 西獨의 F.A. Hayeck는 그를 新版社會主義者로서 100 餘年間 社會主義가 財貨를 더 많이 生産할 수 있는가 試圖했다가 失敗하니까, 이제는 더 많은 財貨의 生産은 必要치 않다고 한다고 나무랐다.⁷⁾

歐美의 先進國에서도 이렇게 大家들의 批判이 強함에도 不拘하고 그의 辨舌에 美國의 青年들이 놀아났고 그 思考와 行動을 各種媒體는 後發國家들에 전파시켰다. 우리나라에도 그 餘波가 들어왔고 또한 아직도 그 影響을 받고 있는 측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歐美에서 2世紀에 걸쳐 이룩한 工業化를 不過 4分の1世紀 또는 半世紀만에 成就코자 하는 우리의 立場은 어떠한가를 살펴 볼 必要가 있다. 經濟·技術의 發展은 政

5) J.K. Galbraith *Afluent Society*, 1958.

6) P.A. F Samuelson, *Economics*, 10th ed.

7) F.A. Hayeck, *Non-Sequitur of the Dependence Effect*, *Southern Econ. Journal* 1961.

治·社會的 發展과 道德 乃至 價値觀의 變化와 均衡되어 發展해야 할 것이지만, 實際經濟·技術面에서의 變革이 원래 急激히 進行될 때 社會的 價値觀이나 政治制度面에서의 變換이 이를 따를 수 없는 것은 거의 當然한 것이다.

西歐에서도 過去의 緩慢한 變化過程에서도 分明히 經濟·技術的 變革과 社會的 變換 사이에 時差가 있었다. 그러기에 18世紀 英國著書속에서 「羊떼에 먹히는 人間」⁸⁾ 이란 말이 나왔다.

다만 急速變換國家에서는 그 時差가 擴大되어 보이고 그 影響이 더 크게 浮刻될 뿐인 것이다. 그리하여 앞서가는 經濟的 事象과 뒤서가는 大衆의 意識 및 道德的 規範間에는 현격한 差異가 나타나게 마련이고 그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한 갈등은 흔히 中進國에서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 理由는 變換이 急速한 點 外에 國民一般의 思考能力의 落後性 - 多角的 考察能力의 缺如 - 에서 찾아질 것이다. 先進國에서는 視角을 달리하는 見解가 나올 때 그것들의 結論뿐 아니라 내다보는 角度 即 視角의 差異까지 冷徹하게 吟味·評價하여 調和있게 받아 들이는데 反해서 後進國에서는 單純하게 한가지 視角에 의한 見解에 感傷的으로 魁了되어 버리는 傾向이 있다. 感傷이 배부리지는 않는 데도 말이다.

5. 經濟發展과 社會的 變換(4) - George Fisk의 時代區分과 關聯해서

여러가지 發展段階의 區分 가운데에서 George Fisk의 3段階說을 例로 들어 보자⁹⁾. 簡單히 말해서 이것은 商品賣買라는 觀點에서의 時代區分으로 ① 物物交換時代 (Barter)로부터 ② 貨幣交換時代 (Money Exchange) 그리고 그 다음은 ③ 需要即應活動時代 (Demand-Serving Activities)로 나눈다.

物物交換이란 옛날 共同體(村落)라는 小集團을 생각해야 한다. 그 共同體는 Aristotlees가 말한 Kiononia (=Community)로서 그 構成員은 友愛(Philia = Brotherhood)로 뭉쳐져 있어서, 그들間에는 有無相通 (Autarkia = Barter within

8) 여기서 羊떼란 毛紡業의 發達, 먹히는 人間이란 生活이 꾸지 못함을 指摘한다.

9) George Fish, Marketing Systems, Harper & Row, 1971.

Community to share surplus) 이 이루어지던 時代이다. 오늘날 一國自給自足政策으로 알려진 sutarky는 Aristoteles 以前에 存續하였을 長久한 未開人類가 同族間의 많고 적음을 公平히 나누기 위한 - 많은 것을 주고 적은 것을 받는 - 有無相通의 行爲였던 것이다. 거기에는 貨弊의 存在도 없고 必要도 없었던 것이다. 果實을 많이 딴 兎이 그것을 아우에게 주고 아우가 많이 잡은 고기를 兎에게 주는 데 돈은 必要치 않다. 이런 時代가 몇 千年동안 繼續되었는지 모른다. 그렇나 아직도 시골 兄弟· 이웃間에는 먹을 것을 나누어 먹는 習慣이 남아 있다.

貨弊交換時代는 人間活動의 領域이 넓어지고 따라서 生産物이 相異한 먼 地方까지 到達하게 되고 또한 地方에 따라 豐凶이 엇갈리므로 주고 받음에 時差가 생김으로써 發生했을 것이다. 物件을 가져간 證票가 必要했던 것이다. 例컨데 조개 한말을 가져가며 한말의 조개껍질을 두고 갔을 것이며 女人이나 動物을 가져가면 그 證票로서 두개골을 두고 갔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金海具塚에서 子安貝 (Crowly = 古代貨弊로 使用된 南洋産貝殼)이 出土된 바 있다. 그것은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賣) 이것으로써 얼마만큼 받을 것이라는(買) 即 交換手段임과 동시에 價値의 保障手段으로 삼았다. 그 후에 人間은 永久不滅의 物質로서 金을 發見하고 貨弊로 삼았으며, 鑄造하고 紙幣를 使用하게 까지 된 것이다.

貨弊交換을 하기 數千年 그間에 人間은 交換의 主宗 特産物 珍貴産物의 交換으로부터 手工業製品의 注文生産으로, 다시 産業革命 後에는 工場制 製品의 市場商品生産으로 發達하였다. 相當期間동안 一部 少數의 國家에서만 可能했던 工場制 生産은 만들어만 내면 팔렸고 所謂 供給이 需要를 創造한다는 Say의 法則이 適用될 수 있었다.

20世紀 初半 一貫生産方式이 導入되고 生産은 短期間內에 需要를 充足시킬 수 있게 되었으니 不渡와 雷出과 倒産과 失業이 續出하게 되었다.(30年代 大恐慌) 2次大戰後 新生國家群은 工業化를 서둘러 先進工業國에서는 Automation化가 進行되어 世界市場은 더욱 좁아졌다.

이런 狀況에서 企業은 傳統的 生産-販賣方式으로는 生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消費者의 多樣한 嗜好와 趣向을 찾아서 商品을 그에 適合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거름 더 나아가 그들은 消費者의 새로운 欲求를 刺戟하고 새로운 流行을 만들고 購買動機를 賦與하기까지 하여, 造出된 新需要에 副應하는 新商品을 차례 차례 만들어

내는 需要即應時代로 들어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消費者欲求의 多樣化는 衣食住가 充足되고 난 後에 奢侈性支出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George Fisk는 前者를 生態學的 必要(Biogenic Needs)라 하고 後者를 心理學的 欲求(Psychogenic Wants)라고 規定하였다. 이것을 J.K. Galbraith는 基本的 必要(Fundamental Needs)와 副隨的 欲望(Conspicuous Desire)로 區分하였다.

그 區分이야 어떻게 하건, 生存에 꼭 必要한 衣食住가 缺乏될 때에는 스타일이건 流行이건 다 必要없다.

보리고개가 사라진지 10餘年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衣食의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갖가지 멋과 趣向과 서비스를 欲求하는 것이 一般化하였고, 그에 따라 企業은 口味를 붓도꿀 멋과 맛을 가진 商品을 製造하고 그것을 宣傳하겠끔 되었다.

生活必須品이 充足되고 난 다음에 非必須的 商品은 그 欲求가 어떻게 하여 發生하는 가 하는 것에 對하여도 여러 說이 있다. 展示效果(Demonstration Effect)나 依存效果(Dependence Effect) 그리고 心理學에서 빌려 쓰는 것이 分명한 學習效果 또는 摸倣效果(Learning Effect) 등이 있다.

여기서 學習이란 보고 듣고 배워서 그 中에 좋은 것을 自己것으로 取擇코자 하는 것을 말한다. 展示나 依存效果는 消費패턴에 가르침을 주는 이웃이나 親舊, 新聞, Radio, 圖書, T.V. 등이 그 中間 役割을 遂行하여 消費行動과 欲望을 이끄는 것을 말한다. 企業立場에서는 바로 여기에 賣上擴大의 機會를 發見하는 것이고, 先進社會에서는 生産能力에 餘裕가 있고 蓄積되어 있는 資本이 있으므로 그것은 經濟規模의 擴大에 寄與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그와 같이 先進社會에서 發生하고 받아 들여지는 依存效果에 依存하여 나타내는 再依存效果가 工業化途上에 있는 國家에서 일어날 때, 가뜩이나 모자란 生産物에 對한 超過需要를 深化하고, 가뜩이나 큰 投資所要를 擴大시키며 國內貯蓄不足을 加重시킨다.

우리나라의 境遇도 그와 같은 再依存效果에 시달리는 狀態를 아직 면치 못하고 있는 側面이 있다. 많은 部門에서는 超過生産도 있으나 一部에서는 아직도 그 國內生産이 없거나 質·量面에서 不足한 狀態에서 超過生産商品의 消費를 促進하는 데에는 不足한 商品의 消費도 따라 擴大한다.

그뿐 아니라 10%以上の 高速成長에는 30%以上の 貯蓄率이 必要하다. 우리나라에서

는 한때(50年代後半) GNP의 103%라는 過大消費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20% 以下の貯蓄性向을 보여 海外貯蓄(外資)에 크게 依存하여 왔다. 그런데도 一部 産業에서는 販賣促進이 不可避하고 또 그것이 積極 行해지고 있다.

6. 現今의 一部社會問題에 對한 思考(1)- 靑少年問題

靑少年의 問題는 그들이 數的으로 多數이기 때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家計支出上의 比重이 크고, 나아가서 將次的 活動을 위한 準備段階로서 知識과 技術, 經驗과 知慧를 蓄積하여야 하는 時期이기 때문에 未來經濟를 위하여 더욱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靑少年問題는 比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經濟社會가 發展할수록 더욱 심화되어 가는 問題이다. 이와 같은 問題에 事前對備하는 意味에서 우선 靑少年 行態 그 自體를 고찰하고, 그 다음에 家庭과 學校·社會 一般의 그들에 대한 態度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靑少年 行態의 問題]

靑少年은 特히 感受性이 강한 年令階層으로 善導되기도 쉽고 誤導되기도 쉽다. 한가지 視角을 맞추어 주면 거기에 나타나는 바를 그대로 받아 들인다.

그러기에 오늘날 그들 大部分은 先賢의 經驗과 研究의 結果를 吸收하기 위하여 讀書하며 단 것에는 關心조차 두지 않는다. 一部는 奢侈를 일삼고 또 一部는 無分別한 模倣에 沒頭한다.

그들은 또 無限히 依存的인면서도 反面에 매우 反抗的인 二律背反的인 兩面을 가진다. 依存的인 것은 父母나 社會의 돌봄에 依存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反抗的 氣質은 本來 살기에 窮하지 않는 나라의 10代 後半에 으레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린 靑少年에게 說明하기 困難하거나, 그것이 靑少年의 氣象이나 自尊心을 傷할까도 두렵고, 또 事物의 性格上 아이들에게 說明할 수 없기 때문에 充分히 說明하지 못하는 어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한 1, 2 등을 못하면 恒常 最善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로 자랑끼여린 변명을 한다.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어머니들의 “내 아들은 머리는 좋은데 工夫를 안해서” 라는 말에 젖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古來의 遺習인 것 같

다. 末席을 하는 애까지도 「머리」는 좋은데...라고 한다. 이 좋은 「머리」가 眞正한 適性を 나타내는 것이라면 本人이 그것을 살리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지만 本人들은 努力을 얹으면서 어른을 닮아하기도 한다.

또한 組織의 權威를 無視하고 長에게 反抗한다. 忠直은 어리석음이 아니면 아부로 본다. 抗拒가 英雄視되는 風潮가 여기에 배태한다.

進取性도 좋다. 더욱이 民族이 世界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매우 좋은 氣象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社長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자 함에는 問題가 있다.

進歩的 自由主義도 좋다. 그것이 眞正 未來를 내다 보고 그 때에 對備하는 마음에서 라면은 말이다. 그러나 未來를 現實로 錯倒하고 未來를 構築하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現實을 否定함은 永遠히 그 求하여 마지 않는 未來에 接近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에 앞선 段階를 밟지 않기 때문이다.

父母에 依存함도 좋다. 父母에 順從하는 限에서, 그러나 돈과 扶養을 받는 것은 子息의 權利이고 속썩는 것은 父母의 義務라는 錯覺은 困難하다. 教師를 없수히 여기는 것도 하는 수 없다, 그것이 富라는 階層差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러나 그것이 登錄金으로 生活하기 때문이라면 問題가 있다. 그것의 延長線上에는 社長은 從業員 賃金を 떼어 먹고 산다는 錯覺이 생긴다. 知識과 經驗을 쌓거나 創業과 企業의 永續性を 위하여 기우린 投資와 心血의 보람을 無慘하게 깨뜨림은 모든 사람이 努力하고자 하는 意欲을 阻喪 시키게 된다.

약삭빠름도 좋다. 그것이 謙虛한 가운데 남달리 시간의 虛費를 주리고 合理性을 찾는 것이라면, 그러나 그것이 社會나 他人을 깔보거나 속임이 介在한다면 것잡을 수 없는 것이 된다. 깔보이고 속임을 당하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疑心하고 不信하게 되어 믿음이 발부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7. 現今의 一部社會問題에 對한 思考(2) - 어른들의

靑少年에 對한 姿勢問題

靑少年 아니 人間의 性格形成에는 10代 또는 그 以前의 時期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을

訓育함에 있어서는 感傷아닌 理性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解放과 6.25로 비롯된 인프레心理에서 脱皮할 必要가 있다. 卽, 뒤질세라 분에 넘는 奢侈를 시키는 것보다 분수것 허름한 옷 입는 것이 將次를 위해서 낫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분수것 사는 버릇을 어려서 길러야 100살까지 잘 살수 있을 것이다.

[愛育 - 眞正과 假性]

아이들의 成績에 지나치게 敏感함은 子女를 父母의 노리개로 삼는 것과 같다. 興味와 素質을 發見하고 適性에 맞는科目과 學科로 誘導함은 極히 바람직하지만 無條件 上級學科入試에 좋은 成績 경우도록 몰아 붙임은 자칫 아이들을 그릇치기 쉽다. 前者는 眞正한 愛育이지만, 後者는 作動 잘하는 노리개는 愛之重之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짓밟는 바와 다를 바 없다.

[計劃性的의 恢復]

現在의 3.40代는 6.25前 世代에 依하여 生育되었다. 여기서 6.25 때 避難길의 어느 女人의 恨嘆을 想起한다. “이럴줄 알았으면 애들이 먹고 싶다는 것과 입고 싶다는 옷이나 싫건 먹이고 입힐 것을!” 이 女人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6.25 발발 直前에 겨우 자그만한 집을 마련한 俸給生活者의 아내였다. 집버리고 세간 버리고 避難길에 오르니 이와 같은 自嘆은 當時 많은 家長·主婦들이 共通的으로 느낀 點이었다. 休戰後 그들은 아이들의 要求라면 무엇이든 먹이고 입히는데 아낌이 없었다. 돈벌이는 닥치는대로 하고 때로 빚 얻어 쓰는 것도 서슴치 않았었다. 그 사이 그들은 아이들을 生育했고, 이제는 그때의 아이들이 아이들을 生育하고 있다. 無計劃性的의 遺産을 代代로 물리면서! 1960年代 初 以來 우리社會는 計劃性的을 갖게 되고 그 結果 國民經濟의 發展은 눈부신 바 있었다. 그런데도 社會와 家計 사이에는 計劃性和 無計劃性的의 乘離가 아직도 拂拭되지 못한 것 같다. 타고난 性品은 아무리 고쳐야겠다는 當爲性을 認定해도 좀체 고쳐지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앞으로의 世代를 生育함에 있어서 만든 하여야-할바-대로 길러야 우리國民의 缺點 卽, 過消費와 奢侈, 그리고 無計劃的 家計運營이 是正될 것이다. 國土의 改造보다 國民意識의 改造는 더욱 어렵다

[嗜好의 調和問題]

社會의 構成員이 多樣한 嗜好를 가짐과 마찬가지로 어떤 團體, 어느 家庭構成員中에도

各樣各色的嗜好가 있을 것이다. 商品 같으면 各樣各色的嗜好에 맞도록 多樣한 商品을 生産하고 選擇하면 되지만, 制度나 行動規範이 모든 사람의 嗜好와 口味를 맞출 수는 없다. 가뜰이나 自己中心的으로 길러진 아이들이, 더욱이 家族計劃으로 많은 아이들이 외아들, 고명딸이 되어 더욱더 自己口味나 自己嗜好만을 主張하게 된다. 自己口味에 맞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록 餘他の 構成員이 모두 좋아 하더라도 唾棄한다. 多數에 따르고 社會에 順應하려 들지 않는다. 多數意思를 다루지 않거나 投票結果를 承服하지 않음도 이와 類似한 行動樣式인지도 모른다.

[보살핌과 부추김의 差異]

兒童에게 教師나 안다는 사람은 敬語를 쓰고, 學生에게 社會人은 흔히 “이 나라의 棟樑” 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한다.

尊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敬語를 쓰는 것이겠지, 訓導하는 사람과 訓導받는 者가 同格이라고 錯倒하여 年長者가 반말했다고 “내가 네 子息이나? 왜 반말해” 라는 行動樣式이 생겨 남에는 束手無策이 된다.

또 學生의 將來에 期待를 거는 것도 首肯할 일이지만, “將來를 떠 받치는 대들보” 라는 意味를 “이 나라를 (現在) 떠 받치고 있는 대들보” 라고 그릇 받아 들여 自己가 이미 나라의 일에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고 錯覺할 時 困難하다. 事物의 價値를 吟味하고 判斷할 能力이 未備한 狀態에서 그것을 떠 받친다는 印象을 줄 때 때로 玉을 내 팽개치고 쓸데 없는 것을 고이 간직하는 愚를 범할까 두렵다.

[早熟과 成熟의 差異]

어른은 아이들을 育成한다. 訓育해서 成人이 되게 한다. 即 成人이 되기 위해서는 訓育의 段階가 必要한 것이다. 成人은 成熟한 사람을 意味한다. 그리고 成熟과 早熟과의 사이에는 差異가 있다. 物件에 있어서는 早熟한 (Sophisticated) 商品이 最新商品을 뜻하고 그것은 곧 좋은 製品인 것이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商品은 舊商品이건 新商品이건 거기에 必要한 모든 過程을 거쳐야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早熟兒를 決코 成人이라 부르지 않는다. 사람에게 있어서 早熟 (Sophistication) 은 그러지 말아야 할 나이에 어떤 일을 한 境遇에 該當하며, 成熟 (Prudence) 은 어떤 일을 當하여도 다 잘 處理할 수 있는 境遇에 該當한다. 어느 누가 어릴 때 越牆을 했다면

는 그와 같은 早熟을 그 사람이 特出한 사람이 되고 난 境遇에는 “어릴 때부터 싹수가 있었다”고 하지마는 普通은 “어린녀석이 싹수가 없다”고 하고 또 어릴 때부터 싹수가 없었다고 한다. 나이라는 段階를 밟지 않게 함은 반듯이 좋은 訓育이라고 할 수 없다. 자칫하면 一擧에 巨富가 되고자하는 허황된 마음을 심을까 두렵다.

8. 現今의 一部社會問題에 對한 思考(3) - 老人問題

壯年은 將次 老人이 되고 靑少年은 그 後의 老人이 된다. 이런 意味에서도 老人은 마땅히 待遇받아야 하고, 또 누구나 祖父母·長上을 待遇한다. 다만 待遇를 어떻게 하느냐가 問題이다.

老人이니 가만히 계시라느니, 敬老堂에 가서서 노시라는 것이 孝道하는 것으로 아는 境遇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집이나 보고 거리적 거리지나 말라는 것이 된다는 事實은 생각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老後의 平安을 希求한다. 그러나 사람은 저마다의 性格을 갖고 있고 또 때에 따라 가만히 있는 것을 즐기고 或은 움직이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 一般的으로 活動하지 않으면 직성이 不爽된다. 活動은 肉體的 運動뿐 아니라 精神的으로도 重要하다. 더욱이 얼마되지 않더라도 所得 또는 給與가 주어지면 더욱 좋다. 따라서 어렵지 않고 隨時로 休息할 수 있는 일감을 만들어 주는 것이 眞正한 老人待接일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하나의 參考로 삼을 일은 和蘭의 愛鳥協會이다. 그協會가 어떻게 運營되는 지에 關해서는 充分히 考察하지 못했으나 많은 老人들이 愛鳥協會員이라는 이름 아래 방대한 다이크(Dike : 提防이라고 하지만 Bank와는 달리 一種의 모래山으로 그 속에는 雨水가 고인 上水道源이 있음)나 數多한 公園의 管理를 하고 있음을 본다. 그들의 任務는 公園 잔디밭의 스프링쿠러를 作動하고 옮겨 놓거나 연못의 물고기 먹이를 管理하고 Dike에 날아와 사는 海鳥를 保護하면서 水源池를 管理(監視)하는 것이 고작이다. 우리 周邊에서도 이와 같은 老人이 힘 안드리고 즐기며 일할 수 있는 일감이 發見될 수 있을 것이다.

眞正한 孝나 待遇는 즐겁고 보람있는 일을 하도록 함이라 생각된다.

9. 要約과 結語

經濟發展에 따라서 일어나는 社會的 變換은 必然的인, 다시 말해서 豫見可能한 趨勢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經濟發展에 따라서 일어나는 社會的 問題는 大部分 豫見하고 對應할 수도 있는 것이다. 事前對備가 重要하지마는 그렇다고 터진 물고를 틀어 막기에 급급하다 보면 엉뚱한 곳이 또 터지고 만다. 이미 생겨난 問題를 解決하면서 同時에 또 提起될 다른 問題를 豫想해서 事前對備하는 것도 슬기라 할 것이다.

本稿는 經濟·社會發展에 따르는 一部 問題에 對한 序說에 不過하며 하나의 接近 方式及至 對應方式을 吟味함에 그쳤다. 따라서 本題와 關聯되는 몇몇 豫言을 檢討하고 現在 抬頭되고 있는 한 두가지 問題에 對한 對應試案을 위한 方向을 提示한 셈이다.

바라건데 앞으로 이와 같은 모든 問題의 하나 하나에 對하여 時間을 充分히 갖고 綿密하게 豫測하고 檢討하여 經濟的이면서도 效果的인 方案들이 나올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期待한다. 豫測은 흔히 時間과 正確하게 合致되지 않는다. 그래서 豫測은 으레 맞지 않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豫測은 그 發生時點이 多少 不正確할지라도 어떤 問題가 將次 發生하리라는 것이 重要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없이 未來를 對備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혼집의 特定部分을 改造하는 것보다 집을 질때 將次的 必要的 部面까지 미리 考慮해서 지으면 費用과 勞力を 節減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떤 事案에 對應함에 있어서 恒常 그 現在的 必要뿐 아니라 먼 훗날에 對備함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